

병아리 별

글 | 김주영

그림 | 와수펀 싘파닛

글 | 김주영

그림 | 와수펀 싘파닛 (Vasuphon Sanpanich - วสุพล สรรพานิช)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베트남어 번역 | 황티장

중국어 번역 | Wenting Du, 교정: 이흠

영어 번역 | Jennifer An

태국어 번역 | 김주영, 감수: 분타리카 너이씨 (บุณฑริกา น้อยศรี), 교정: 채혜

민

목소리 | 한국어: 윤성혜, 베트남어: 레 쉘언 비, 중국어: 곽효여,

영어: 제인 페인터, 태국어: 페와 떼차마하몽콘





옛날 옛날에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두
사람에게는 자녀도 손주도 없었고 오직
암탉 한 마리만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암탉을 위해
마당에 모이를 뿌렸고, 암탉은 그런 두
사람에게 항상 감사했어요.



시간이 흘러 암탉은 알을 낳았고
머지않아 귀여운 병아리 일곱 마리가
나왔어요. 암탉은 일곱 마리의
병아리에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돌봐 주시는 좋은 분들이란다. 꼭
기억해 두렴.”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오두막집이 있는 숲 속으로 수행을 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스님께 드릴 음식이 없어 걱정이 되었어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음식을 드리지 못 하면 스님께서 굶으실 텐데...”



고민 끝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키우던 암탉을 잡아 스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암탉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암탉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모두 다 듣고 있었어요. 병아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자신을 보살펴 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암탉은 병아리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했고 병아리들은 엄마 닭의 품에 안겨 슬피 울었어요.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암탉을 요리하기 위해 불을 지폈어요.
바로 그때, 일곱 마리 병아리들이 불
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엄마 닭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있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엄마
닭을 사랑하는 병아리들의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의 천사도 은혜를
아는 암탉과 병아리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곱 마리 병아리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게 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황소자리 가까운
곳에서 일곱 개의 반짝이는 별을 찾을
수 있어요. 태국 사람들은 이 별들을
'병아리 별'이라고 부른답니다.

“병아리 별”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